한마음한몸

2019 가을호 vol.43

www.obos.or.kr

"거저 받은 생명을 나누어
사랑을 실천합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One-Body One-Spirit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1코린 12,27)

안녕하세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본부장 김정환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는 계절이 돌아왔네요.
한국 교회는 31년 전 서울에서 세계성체대회가 열린 것을 계기로,
많은 천주교 교우들이 헌혈과 안구 기증을 약속하며
한마음한몸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도 선종하시며 약속을 지키셨던 모습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온 운동이지요.

조혈모세포기증, 사후 안구기증 및 장기기증 서약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과 여건만으로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실천 운동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오늘을 소중하게 누리며
나눔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 서로 생명의 밥이 되어줍시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본부장 **김정환 프란치스코**

한마음한몸

기획특집

4 거저 받은 생명을 나누어 사랑을 실천합니다
6 티나 수녀의 마음 나누기

지금, 함께하기

8 별 보다 더 밝게 빛나는 마을, 따레빌
10 사람(human being)과 공동체(community)의 가치

생명존중 스토리

12 가톨릭 교회, 자살예방교육에 앞장서다

생명나눔 스토리

14 마음을 돌보는 치유의 자리, 슬픔 속 희망 찾기

16 금(金)모닝, 한마음한몸
17 장기기증자 봉헌의 날 안내
18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20 본부 소식

커버스토리

본부를 통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600번째 기증자는 의정부교구의 이승룡 이냐시오 신부입니다. 사제의 신분으로 그리스도가 강조하신 생명 나눔을 실천한 신부님은 “거저 받은 생명을 누군가와 조건 없이 나누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하는 일”이라 말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고(故)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설립하시고 초대 이사장을 지내셨던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1989년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를 준비하면서 생명존중과 나눔실천이라는 대회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헌혈, 헌안운동을 벌이며 교회와 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현재까지 국내를 비롯한 지구촌 50여 개국을 대상으로 나눔운동과 생명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통권 43호 | 2019년 가을호

발행인 유경촌
발행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발행일 2019년 가을
편집·디자인 슬로워크
주소변경 및 문의 모금관리팀
T 02)727-2288
E obos@catholic.or.kr

www.obos.or.kr
facebook.com/oboscorea
onebody_onespirit
www.youtube.com/obosvideo

소식지 한마음한몸은 홈페이지(www.obos.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소식지의 저작권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있습니다.
Copyright © ONE BODY ONE SPIRIT. all rights reserved

거저 받은 생명을 나누어 사랑을 실천합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600번째 조혈모세포 기증자

600번째 조혈모세포 기증자
이승룡 이냐시오 신부(의정부 교구)

본부는 2003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조혈모세포기증 희망자 등록기관'으로 선정되어 생명을 살리는 조혈모세포기증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본부를 통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600번째 기증자가 탄생했습니다. 주인공은 의정부교구의 이승룡 신부입니다. 사제 신분으로 그리스도가 강조하신 생명 나눔을 실천하였기에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숭고한 생명 나눔 현장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본부장 김정환 프란치스코 신부가 방문하여 직접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사랑이 충만했던 현장의 온기를 생생하게 담아 전합니다.

이승룡 이냐시오 신부는 2003년 신학교에서 조혈모세포기증희망등록을 했고, 16년만인 지난 8월 국립암센터에서 익명의 환우를 위해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기증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본부장 김정환 신부는 600번째 기증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신부님을 통해 한 사람의 작은 나눔과 그 결정이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며, "이 생명의 나눔을 통해서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작은 생명을 나눌 때
비로소 사랑은 완성됩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서명은 언제, 어떻게 하시게 되었나요?

신학교 입학 동기 중에 백혈병에 걸린 여동생이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친구가 여동생에게 골수 이식 방식으로 조혈모세포를 기증 했던 모습이 기억에 남더라구요. 동생을 위해 기증 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나의 조혈모세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도 꼭 기증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2003년에 좋은 기회가 생겨 처음 기증 희망을 등록하게 되었어요.

기증 요청을 받았을 당시 심정이 어땠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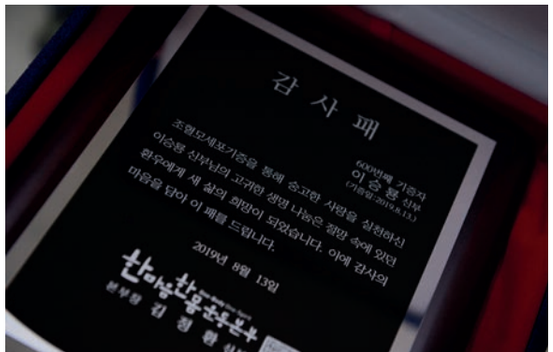
사실, 2017년에 유전자가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고 연락이 왔었는데요. 모든 유전자가 일치하진 않아서 결과적으로 기증하지는 못했어요. 처음 기증 등록을 하고, 거의 16년 만에 실제 기증을 하게 되었네요. 연락이 왔을 때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덤덤했어요.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누고 도움을 주는 일이라서 망설임 없이 기증을 진행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두렵거나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반드시 골수 채취를 해야만 기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은 말초혈 조혈모세포기증이라고 해서 간편하게 기증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마음만 있다면 걱정 없이 누구나 기증을 할 수 있답니다.

사제의 신분이다 보니, 생명나눔에 대한 생각이 더 각별할 것 같아요. 장기기증이나 조혈모세포 기증처럼 생명을 나누는 일에 대해 한 마디 해주세요.

이사야서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고루 내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일 또한 이 말씀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혈을 자주 하고, 지금은 조혈모세포기증도 했지만 여전히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거저 받은 생명을 누군가와 조건 없이 나누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완성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조혈모세포기증운동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기증희망자 확보와 조혈모세포 캠페인을 통해 기증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혈모세포기증 희망신청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가까운 헌혈의 집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8~40세 사이의 신체 건강한 분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02)727-2268, 1599-3042

기획특집

티나 수녀의 마음 나누기

고마움을 전합니다

박이경 크리스티나 수녀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환자나 보호자들을 만나다 보면 '고맙다'는 인사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전달자에 불과한 제가 대신 받은 '이 과분한 마음'을 어떻게 후원자분들께 전해드려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부 홈페이지나 소식지를 통해 일부 사연을 전달하고 있지만, 사정상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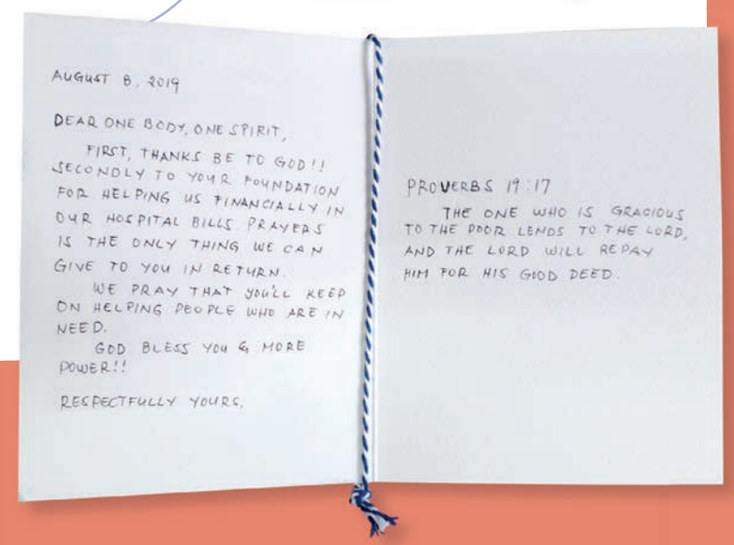
그중에서 오늘은 꼭 전해드리고 싶은 보호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환자는 태어난 지 한 달이 갓 넘은 남자 아기이고, 부모님은 필리핀 국적입니다. 부모님은 한국에서 만나 결혼했고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기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태어나면서 태변 흡입과 폐렴으로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치료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필리핀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느라 모아 놓은 돈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기엄마는 치료비 마련을 위해 출산 직후 가사도우미 아르바이트를 하루 네시간 씩 하고 있었습니다. 산후조리도 못 한 채 아기를 위해서 일하는 어머니의 사연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아기의 건강 회복을 위해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아기를 지키려고 무리해서 일하는 어머니의 건강도 우려가 되어, 하루라도 빨리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전달식 때 만난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 고요히 자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어가 서툴러 많은 표현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눈빛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맙다며 작은 상자와 카드를 건넸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무척 당황해서 바로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작은 초콜릿 상자에 담긴 그들의 고마운 마음이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후원자분들께 꼭 전해드리겠다고 말하며 감사히 받았습니다.

우리는 본부로 돌아와 영어로 쓰인 카드를 읽으며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분들은 가장 먼저 하느님께 감사드렸고 우리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 도와줄 수 있도록 기도한다며 하느님의 축복을 빌어주셨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잠언 19,17)



AUGUST 8, 2019

DEAR ONE BODY, ONE SPIRIT,

FIRST, THANKS BE TO GOD!! SECONDLY TO YOUR FOUNDATION FOR HELPING US FINANCIALLY IN OUR HOSPITAL BILLS. PRAYERS IS THE ONLY THING WE CAN GIVE TO YOU IN RETURN.

WE PRAY THAT YOU'LL KEEP ON HELPING PEOPLE WHO ARE IN NEED.

GOD BLESS YOU & MORE POWER!!

RESPECTFULLY YOURS,

PROVERBS 19:17

THE ONE WHO IS GRACIOUS TO THE POOR LENDS TO THE LORD, AND THE LORD WILL REPAY HIM FOR HIS GOOD DEED.

2019년 국내 환자 치료비 지원현황 (2019년 1월 ~ 8월 말)

지원사업	성명	병명	지원금
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치료비 지원	이OO 외 11명	백혈병 외	11,350만 원
장기이식 대기자 치료비 지원	이OO 외 10명	간 이식 수술 외	8,920만 원
긴급 지원	박OO 외 16명	간암 외	11,350만 원

빠른 쾌유를 기도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선뜻 마음을 나누어주신 후원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 환자 치료비 후원하기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198-334455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문의
02)774-3488

별 보다 더 밝게 빛나는 마을, 따레빌

지구시민교육 활동 띠앗누리

띠앗누리는 문제의 정답을 맞히기 위함이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과정을 찾는 교육입니다.
이번 활동의 핵심 키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단원들과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며 마음을 나눴습니다.

띠앗누리 27기는 7월 한 달간 인권, 교육, 환경 그리고 네팔을 주제로 사전 교육을 받은 후, 7/26(금) ~ 8/10(토) 동안 네팔 따레빌에 방문하여 현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레빌 가는 길

— 손영오 다니엘

그는 나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었고
나는 어느새 덜컹덜컹 비틀비틀
아찔한 돌산을 오르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왜 가느냐고 물었고
나는 어느새 구름 위에
작은 마을 속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었다.

그는 나에게 왜 왔느냐고 물었고
나는 나의 행복을 찾으러 왔다 하였다.
...
나는 그에게 주는 거 없이 받고만
왔다고 했다.

따레빌, 구름 위에 마을
나는 거기서 천사를 만나고 왔다.

따레빌 마을에서 보낸 모든 순간의 기록

*띠앗누리 27기 후기집에 실린 수기를 재구성하였습니다.

따레빌의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따레빌에서 보낸 모든 순간이 특별했다. 날씨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모든 활동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서로 다른 우리가 만나 상대를 알아가고, 이해하며 하나가 될 수 있던 값진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띠앗누리가 함께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길 바란다.

오레오 (오석준 신부 레오)

Pursuit of HAPPINESS

따레빌에서는 한국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넓고 푸르른 하늘부터 셀 수 없는 나무들, 맑은 공기, 거룩하고 신성해 보이는 히말라야까지. 아스팔트 도로처럼 딱딱해져 갔던 내 마음이 이곳에서는 진흙 길을 밟는 듯 말랑해졌다. 하루하루 자연 속에서 정화되어 가는 기분이었다.

다토 (이정언 다토)

잊을 수 없는 나의 따레빌

따레빌에 도착한 첫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아주던 아이, 푸니마. 먼저 열어준 마음 덕분에 나도 용기를 내어 다가갈 수 있었다.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즐기는 아이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큰 즐거움을 느꼈다.

세티 (김진광 사도 요한)

따레빌, 마야거르추 (네팔어로 '사랑합니다'를 뜻함)

띠앗누리 27기가 앞으로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도 너무 기대된다. 내가 누리고 있는 오늘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 행복했고, 행복하고, 또 행복할 것이다.

문 (유수진)

그 모습 그대로

아이들과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해맑은 아이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매 순간이 소중했다. 웃음은 전염이 된다는 말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웃음 가득한 행복의 기억을 선물했다. 우리는 함께 마음의 꽃씨를 나눠 가졌다. 이 꽃씨는 우리 안에 자리 잡아 각자 나름의 모습으로 피어날 것을 믿는다.

스텔라 (유덕향 스텔라)

메로 체우마, 하미 (네팔어로 '내 곁에, 우리'를 뜻함)

네팔어로 너머스떼, 너머스까르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내 안의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께 경배한다는 뜻의 인사말이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거처하시는 성전이고, 그렇기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이가 예수님인 것이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 그 마음을 꼭 닮고 싶어졌다.

나무 (김정민 루시아)

네팔 따레빌 마을의 15박 16일 일하고 기도하며 기쁨을 찾는 여정

우리는 파견되었고 또다시 파견됩니다. 돌아갈 일상이 있어 감사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기쁩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어제와 오늘의 기억을 안고 힘을 얻어 내일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띠앗누리 28기 모집

2020년 1/9(목) ~ 19(일) 동안 함께 캄보디아로 떠날 28기 단원을 11/17일(일)까지 모집합니다.

※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사람(human being)과 공동체(community)의 가치

캄보디아 국제협력 현장 모니터링

19.07.29 ~ 19.08.08
국제협력팀
박진솔 아네스

좀립쑤어! ('안녕하세요!'라는 뜻의 크메르어입니다.) 저는 본부 국제협력팀에서 일하고 있는 박진솔 아네스입니다. 저와 부본부장 이정민 비오 신부님은 현지 직원 및 사업참여자들을 만나 후원자님들이 지구촌 이웃들을 위해 모아주신 기부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지난 7월 캄보디아 사업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본부의 캄보디아 사업은 농부, 그리고 장애인들과 함께합니다. 캄보디아는 대부분의 지역이 농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된 가뭄으로 농산물 생산이 줄어들면서 이들의 삶도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는 전쟁과 분쟁의 역사 속에서 국토 전역에 매설된 대인지뢰 등으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많습니다. 장애를 전생에 지은 죄에 대한 업으로 여기는 일부 사회문화적 배경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입니다.

"혼자서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을 이웃들과 함께하기에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캄보디아의 농부 및 장애인과 함께하는 본부 사업의 열쇠(key)는 바로 '사람(human being)과 공동체(community)의 가치'입니다. 이번 캄보디아 출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내 가족이 있었기에, 이웃이 있었기에,공동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우리가 가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가족이 있었기에, 이웃이 있었기에, 공동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우리가 가능했다.'

이들은 온갖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믿으며 함께하는 현지 기관의 협력, 그리고 본부 후원자분들의 도움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회복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캄보디아 시골 마을의 사람들, 농부와 장애인은 가난하지만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몸소 체험하였고 이를 저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을 일상에서 실현하고자 지구 건너편에 있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눔을 실천하는 후원자님들께 이들의 감사한 마음이 전해지길 희망합니다.

가톨릭 교회, 자살예방교육에 앞장서다

윤호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서울대교구 둔촌동 본당)

온 마음 다해 지키는 숭고한 생명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고 하면,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어쩌면 우리는 '자살률 1위'라는 말을 듣고도 별반 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이 통계를 오랜 기간 동안 자주 들어왔을지도 모르겠다. '대한민국'과 '자살'이라는 주제가 던졌을 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것의 심각성이나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인의 권유로 자살예방교육에 뜻을 두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자살 현황'이라는 주제에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 우연히 2019년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에서 주최하고 동성고등학교에서 개최된 자살예방교육에 참여하게 되면서, 새삼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가톨릭교회의 성직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자살을 결심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자살을 결심한 이들의 마음에 가장 먼저 와닿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단연 '관심'이다. '자살 기도'라는 자신이 처한 인생 최대의 위기 상황에서, 그 극단적인 선택 앞에 서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지 누군가가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 그렇다, 이생에서의 삶을 포기하려는 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은 그들이 자신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자살예방교육 또한 '관심과 위로, 애정과 공감'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실제로 자살 예방에 있어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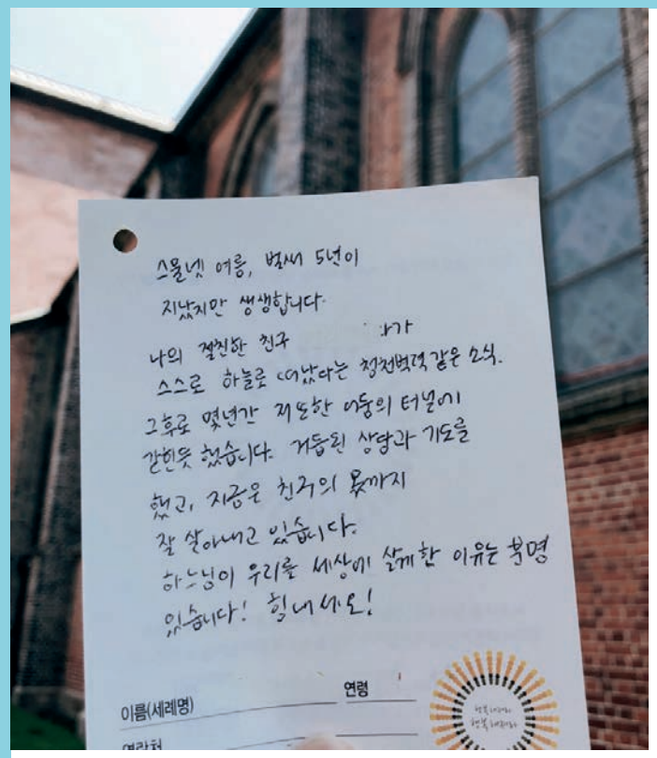
사실 이미 많은 곳에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에서 가톨릭교회 사제들을 자살예방교육 강사로 양성하고, 자살예방교육의 기회를 늘려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안에는 가톨릭교회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그 목소리가 가질 수 있는 힘은 '하느님의 모상성(모습)을 지닌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고 우선시되어야 한다'라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다. 더욱이 가톨릭교회는 그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이는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의 본성이다. 죽고 싶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 제대로 살고 싶다는 외침의 다른 표현이다.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은 제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지막 외침을 어떻게 알아듣고 응답해야 하는가이다.

가톨릭교회가 생명의 가치를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자살예방교육은 가톨릭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화하고 발전해나가야 한다. 주일학교 교리교육, 사순 및 대림 특강 주제, 예비자 교리, 신자 재교육 등 다양한 기회와 형식으로 신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 누군가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에 가장 편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는 이들이 바로 가톨릭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사제들과 수도자들, 더 나아가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생명에 대해 더 관심을 두고,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동반자가 되어 대한민국의 자살률 감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하느님의 모상성(모습)을 지닌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고 우선시되어야 한다."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지도자를 위한 생명존중 교육"을 이수하고, 동성고등학교 자살예방교육 일일교사가 된 윤호진 토마스아퀴나스 신부님모습



인스타그램 온라인 캠페인
마음을 위로하는 기도

스물넷 여름,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생생합니다.
나의 절친한 친구 OO가 스스로
하늘로 떠났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그 후로 몇 년간 저 또한 어둠의 터널에
갇힌 듯했습니다.
꾸준히 상담과 기도를 했고, 지금은
친구의 몫까지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한 이유는
분명 있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마음을위로하는기도 #생명기도나무
#명동성당기도나무 #자살유가족을위한기도
#한마음한몸운동본부자살예방센터

❶ 인스타그램 **#마음을위로하는기도** 계정을 팔로잉해 주세요.
❷ 익명의 신자들이 작성한 기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❸ 인스타그램에 따뜻한 기도가 가득해지는 그 날을 꿈꾸며 캠페인은 계속됩니다.

인스타그램 @read_todays_prayer

마음을 돌보는 치유의 자리
슬픔 속 희망 찾기

'슬픔 속 희망찾기' 는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가 운영하는
자살 유가족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으로 자살로 소중한 이를 잃은
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돌보며 일상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월례미사와 모임, 피정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태 5,3-4

월례미사
자살로 생을 마감한 고인과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합니다.

1박2일 피정
소중한 이를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며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정기모임
자신의 아픔을 스스로
들여다보고 함께 나누며
시간을 보냅니다.

주변에 자살 유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좋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그 어떤 아픔보다도 아픈 일입니다. 특히 스스로 삶을 포기한 이의 남은 가족이 살아가는 삶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도 같을 것입니다. 주변에 자살 유가족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위로를 표현하며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주시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합니다. 가족분들이 충분히 아파하고 몸부림칠 시간을 먼저 주고 마음껏 슬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의 잣대가 사라진 진심 어린 따뜻한 눈빛으로 함께 해주며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를 조용히 빌려줄 때 진정한 치유의 과정은 시작됩니다.

슬픔 속 희망 찾기
애써 위로하지 않아도 마음의 위로가 되는 시간

'슬픔 속 희망 찾기'에
참여한 분들이 남겨주신
희망의 메시지

사별의 사유가 같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한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와 사랑을 받고 갑니다.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보며 또 다른 희망을 얻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피정을 하면서 숨겨두었던 아픔을 꺼내어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꽉 막혔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자살은 죄가 아니라는 것.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성당에서는 절대 모든 걸 다 말할 수 없어요. 특히 자살이라는 말은)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슬픔과 위로를 느꼈습니다.

슬픔 나누기 시간과 자유 시간마다 함께 하면서 서로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응원해주는 시간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용기와 힘을 주셔서 자괴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자살은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고통 속에 매몰되지 않고 가장 힘든 순간에 내 감정을 돌아보며,
명상을 통해 벗어나는 방법을 알게 되어 만족합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잘 이끌어 주는 따뜻한 두분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호흡명상도 열심히 해 보고
나의 삶에서 소중한 것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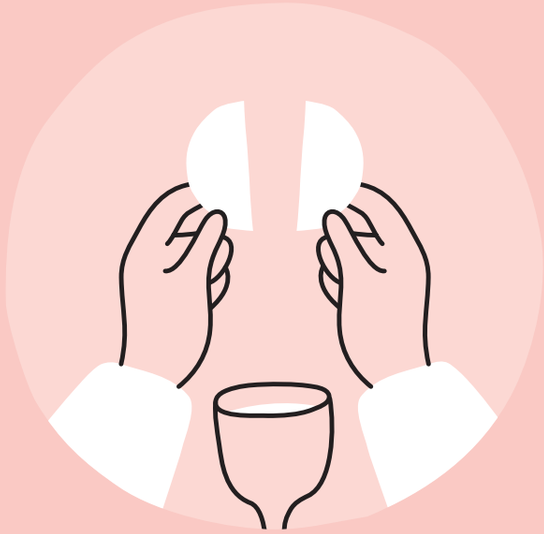
나의 감정이나 생각 또한 몸의 감각을 느끼고 표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꽁꽁 숨겨 놓았던 그 날의 아픈 기억을 떠올려보면서,
가슴속 슬픔을 꺼내어 함께 이야기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위기상담전화	정신건강 상담전화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1393(24시간)	1577-0199	02)318-3079

금(金)모닝, 한마음한몸

금요일 아침의 선물같은 시간



일시
매월 마지막 금요일
특강 10시 30분 ~ 11시 30분
월례미사 11시 40분 ~ 12시 30분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신청방법
본부 홈페이지(www.obos.or.kr) 또는 전화(02)774-3488)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강의는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며, 무료입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는 그동안 본부를 후원해주시고, 활동에 함께해주신 분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2019 한마음한몸 월례미사 및 특강 '금모닝, 한마음한몸'을 마련하여 지난 5월부터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강 후에는 월례 미사를 함께 봉헌하며 아침 일찍 찾아주신 한 분 한 분께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미사 중에는 특별히 태아 축복식도 진행하면서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가족들뿐 아니라 미사에 참여한 모든 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태중 아이의 건강과 축복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월례미사 및 특강 내용

날짜	특강자	특강 주제
10월 25일	신정훈 미카엘 신부 (가톨릭 대학교 성신교정)	실천하는 신앙인
11월 29일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국제협력팀	지구촌 생생정보통 모니터링 현장 이야기
12월 27일	주교 유경촌 디모테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이사장)	성체성사의 삶

※ 신청 취소를 원하시면 전화로 꼭 알려주세요.

www.obos3042.or.kr

희망의씨앗

희망의 씨앗은
생명나눔을 뜻하는
통합브랜드입니다

2019 장기기증자 봉헌의날

2019년 11월 24일(일) 오후 2시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마리아홀(서울성모병원 내)

대상
장기기증자 유가족,
장기기증희망등록자

프로그램
1부 사랑과 희망의 콘서트 (알테 무지크 서울)
2부 기념식
3부 미사 (집전 : 유경촌 주교 외 사제단)

후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서울성모병원 안은행,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 가톨릭대학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One-Body One-Spirit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한마음한몸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시연 아녜스, 김나연 미카엘라

안이준

이리원 엠마, 이서원 젬마

새로운 한마음한몸 후원 가족

정기, 일시 후원 참여신청 및 문의 | 02)774-3488

신규 후원자 (7월 1일~9월 18일)

가성현 | 가채원 | 강귀화 베로니카 | 강명주 레오니아 | 강미이 아녜스 | 강석경 라파엘 | 강영미 비아 | 강예원 나탈리아 | 강온유 | 강지혜 카타리나 | 강태성 요셉 | 강형민 아녜스 | 강호천 라우렌시오 | 거제 이카타리나 | 경기대전현직도서 | 고객지원팀글로딜 | 고민경 안나 | 故박재봉 엘리사벳 | 고영진 | 고은재 모니카 | 고정이 | 고형미 노엘라 | 곽경미 레나다 | 구순남 | 구영기 베드로 | 국혜은 올리바 | 김건옥 아나스타샤 | 김검래 세실리아 | 김경수 베드로 | 김경순 글라라 | 김경화 헤레나 | 김규식 제노 | 김근숙 헬레나 | 김다빈 세실리아 | 김다영 마리아 | 김도균 사도요한 | 김동헌 미카엘 | 김모세 | 김문정 글라라 | 김미회 말가릿다 | 김민정 | 김민지 | 김민지 소화데레사 | 김병숙 데레사 | 김병준 토마스모어 | 김보선 글라라 | 김선기 | 김선영 율리아 | 김선주 수산나 | 김선형 데레사 | 김성환 레온시오 | 김소윤 카타리나 | 김소희 요안나 | 김수민 유스티나 | 김수연 모니카 | 김수철 안셀모 | 김숙자 도로테아 | 김순란 분다 | 김승태 바오로 | 김연희 마리아 | 김영기 아녜스 | 김영미 글라라 | 김영민 | 김영진 요셉 | 김영환 대건안드레아 | 김영희 | 김예림 리디아 | 김옥현 비비안나 | 김옥희 리디아 | 김용섭 베아따 | 김우정 | 김원정 에우제니아 | 김윤석 알릭스 | 김윤숙 아녜스 | 김윤영 | 김은숙 프란치스카 | 김은진 아녜스 | 김이유 | 김인숙 엘리사벳 | 김인순 | 김재옥 | 김정구 스테파노 | 김정숙 마르가르따 | 김정숙 비비안나 | 김정순 다리아 | 김정원 요한 | 김정자 헤레나 | 김정형 로사 | 김정희 마리안나 | 김정희 바실리아 | 김정희 안젤라 | 김종섭 | 김종한 베네딕도 | 김준식 베드로 | 김지연 | 김진수 | 김찬주 벨라뎃다 | 김청득 마리아루이스 | 김춘강 크리스티나 | 김태훈 | 김한 | 김행순 율리엣다 | 김현겸 프란치스코 | 김현숙 가브리엘라 | 김호섭 안셀모 | 김홍 유스티노 | 김효진 | 김흥식 | 김희림 안젤라 | 김희선 데레사 | 나주연 베드로 | 남궁영 유스티나 | 남우자 엘리사벳 | 남윤주 미카엘라 | 남혜경 | 노승욱 | 노정현 | 노효숙 카타리나 | 데레사 | 류영준 | 류재순 | 류지욱 바오로 | 목동성당마라톤동호회 | 민영숙 효주아녜스 | 박경미 수산나 | 박경숙 | 박두신 | 박명숙 아녜스 | 박모니카 | 박묘자 엘리사벳 | 박미선 크리스티나 | 박민희 모니카 | 박부경 미카엘라 | 박상남 하상바오로 | 박상진 | 박상현 | 박서담 라파엘 | 박서영 안젤라 | 박서정 | 박서준 미카엘 | 박석순 수산나 | 박소영 크레센시아 | 박순희 아가다 | 박시은 사라 | 박연직 | 박영희 글라라 | 박용경 | 박용호 베드로 | 박은경 카타리나 | 박은숙 세실리아 | 박은숙 체칠리아 | 박인규 | 박정선 로사 | 박정숙 소화데레사 | 박정언 베네데따 | 박정호 제노 | 박정희 데레사 | 박종준 스테파노 & 김희선 루치아 | 박준병 | 박중규 루카 | 박지수 라파엘라 | 박지영 비비안나 | 박철신 | 박춘자 헬레나 | 박하연 마리스텔라 | 박행지 루시아 | 박혜진 아녜스 | 박희숙 엘리사벳 | 방수진 클로틸다 | 배문경 안티아 | 배연자 소화데레사 | 백귀자 프란치스카 | 백대현종현 | 백동윤 안젤로 | 백종목 | 백지민 루피나 | 백지아 수산나 | 백지영 안젤라 | 백현진 | 변옥경 마리나 | 변원복 타르실라 | 서숙이 엘리사벳 | 서영란 마리아 | 서윤석 | 서인숙 | 서재섭 페르나도 | 서해경 카타리나 | 서현진 오틸리아 | 서혜진 세실리아 | 성인용 아녜스 | 소은성 | 손호인 모니가 | 손희성 안나 | 송민효 | 송병현 | 송영숙 헬레나 | 송영탁 | 송지혜 미카엘라 | 송혜인 소피아 | 신명자 헬레나 | 신민정 로사리아 | 신승현 그레고리오 | 신연승 엘리사벳 | 신은열 방글라시아 | 신향란 | 신현미 소화데레사 | 신혜진 마리아막달레나 | 아녜스 | 아이도넛케어 | 안삼숙 레지나 | 안수경 리디아 | 안순호 소화데레사 | 안인숙 글라라 | 안주영 비비안나 | 안찬용 안토니오 | 안혜영 아가다 | 양금례 스텔라 | 양승은 레아 | 양승표 제노 | 양주2동성당 | 양주영 프란치스코 | 양창진 도미니코 | 여로즈마리 | 오경순 세곤다 | 오경하 | 오기용 로마노 | 오성엽 | 오영숙 안나 | 오주미 글로리아 | 오학동 안토니오 | 오혁 토마스아퀴나스 | 오효균 스텔라 | 왕은숙 | 원용희 | 원종신 아가다 | 원혜연 엘리사벳 | 유계숙 라파엘라 | 유승희 베로니카 | 유영애 가타리나 | 유용균 | 유원영 아델라 | 유유리 안나 | 유재민 세례자요한 | 유찬우 리디아 | 유태안 사도요한 | 유효정 | 윤남석 사라 | 윤미섭 소피아 | 윤석향 글라라 | 윤진후 필립보 | 윤홍경 마틸다 | 은채원 카타리나 | 이강산 스테파노 | 이경미 아가다 | 이경숙 실비아 | 이경순 헬레나 | 이경열 | 이경진 | 이계순 라파엘라 | 이광옥 | 이광원 | 이규복 다니엘 | 이규철 | 이규철 베드로 | 이근선 안나 | 이금례 엘리사벳 | 이기정 젤뚜르다 | 이나경 마리아 | 이다희 마리나 | 이도헌 성 마르티노 | 이동연 엘리사벳 | 이동은 암브로시오 | 이동환 요셉 | 이득신 헬레나 | 이명례 프란체스카 | 이미정 | 이미정 카타리나 | 이민정 | 이민정 벨라뎃다 | 이상진 프란치스코 | 이서윤 스텔라 | 이서준 다니엘 | 이석종 미카엘 | 이선희 사라 | 이성근 사도요한 | 이성민 요아킴 | 이소영 안나 | 이숙란 에스더 | 이순자 크리스티나 | 이승진 도로테아 | 이승현 요셉 | 이언림 비아 | 이영아 | 이영주 스텔라 | 이영희 헬레나 | 이옥경 모니카 | 이용성 마르띠노 | 이우진 | 이운익 마태오 | 이유리 요안나 | 이유미 프란체스카 하비애르 | 이유민 | 이윤주 마리아 | 이은옥 | 이은주 데레사 | 이은주 세레나 | 이재성 프란치스코 | 이재성 가누도 | 이재심 로사 | 이재주 엘리사벳 | 이정근 엘리시오 | 이정민 아녜스 | 이정숙 아녜스 | 이정은 율리아 | 이정진 오시타 | 이정희 아가페 | 이정희 베로니카 | 이종금 아녜스 | 이준석 | 이준영 | 이지선 세실리아 | 이지은 발렌티나 | 이진경 소피아 | 이태희 필립보 | 이하정 엘리사벳 | 이현 스텔라 | 이현욱 | 이현정 그라시아 | 이현주 미카엘라 | 이혜숙 | 임세희 | 임수진 젬마 | 임순자 루시아 | 임순희 요안나 | 임예솔 리디아 | 임옥순 안젤라 | 임정옥 엘리사벳 | 임지연 | 장동혁 레오 | 장성희 루시아 | 장영 라파엘 | 장영자 | 장영채 도미니꼬 | 장우용 스테파노 | 장윤수 릴리안 | 장인경 크리스티나 | 장정화 | 장학균 | 장효준 | 전성실 안젤라 | 전영희 보나 | 전인자 엘리사벳 | 정강은 세실리아 | 정경훈 요셉 | 정국희 젬마 | 정규연 라파엘라 | 정금현 수산나 | 정도연 마리나 | 정란 엘리사벳 | 정리아 | 정만수 요한 | 정명화 | 정문용 | 정성원 안드레아 | 정세리 엘리사벳 | 정세진 카타리나 | 정용례 데레사 | 정인영 마리아 | 정인용 바오로 | 정재민 가누도 | 정재연 헬레나 | 정재훈 | 정찬만 베드로 | 정현숙 아녜스 | 정혜경 안젤라 | 정희좌 마리아 | 조나은 | 조미경 아녜스 | 조병욱 비오 | 조비오 | 조석제 다니엘 | 조성옥 | 조성질 베드로 | 조수빈 가브리엘라 | 조운주 크리스티나 | 조은경 베로니카 | 조일래 예로니모 | 조재영 바오로 | 조재준 루시아 | 조정숙 | 조정혜 다리아 | 조창현 예로니모 | 조항의 모니카 | 조현미 소피아 | 조현정 엘리사벳 | 조현호 | 조효정 헬레나 | 주민경 가타리나 | 주민숙 루치아 | 진우형 아우구스티노 | 진정란 요안나 | 차복성 안젤라 | 차쾌술 알베르토 | 채송화 | 천진아 고드베르타 | 최경자 소피아 | 최미경 안나 | 최미자 안나 | 최선길 루카 | 최선영 스텔라 | 최성열 사도요한 | 최연희 | 최영세 | 최옥란 루시아 | 최윤정 미카엘라 | 최은숙 모니카 | 최은주 | 최은주 루시아 | 최은희 | 최정은 안젤라 | 최지영 아녜스 | 최지유 | 최창환 프란치스코 | 최철기 바오로 | 최현옥 데레사 | 최현주 | 최현희 마리아막달레나 | 태숙준 실비아 | 푸른요트투어 | 하나미 스텔라 | 하동진 로엠 | 하정아 요안나 | 한규남 스테파노 | 한은주 마리나 | 한정연 엘리사벳 | 한혜숙 | 한혜순 아녜스 | 해안엘에스 | 허남식 아브라함 | 허영숙 | 허인 힐라리오 | 홍만기 알로이시오 | 홍성이 미카엘라 | 홍주연 | 홍화자 엘리사벳 | 황경회 소피아 | 황명선 미카엘라 | 황미경 요안나 | 황순애 | 황준환 알렉시오 | 황태희 글라라 | GRISAWANON | LEESAEWHA

나눔가게·나눔기업

나눔가게·나눔기업 참여신청 및 문의 | 02)727-2294

321호점 서울 강남 선릉로 나피스타일	325호점 서울 동대문 전농로 래미안탑부동산
322호점 서울 강남 도산대로 유정식당	326호점 부산 해운대 센텀6로 ㈜여행담
323호점 서울 송파 마천로 해와별소아청소년과의원	327호점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제이웨이
324호점 서울 강서 공항대로 비원공인중개사무소	328호점 경기 성남 분당구 야탑로 양떼떼

감사 기부

곽종호 대건 안드레아 대자 세례 기념 | 권준이 소화데레사 졸업 기념 | 김경진 베로니카 이직 기념 | 김미영 라파엘라 세례 기념 | 김태현 가브리엘 | 김혜영 글로리아 세례 기념 | 남성식 스테파노 | 류승균 베드로 | 박다현 비비안나 취업 기념 | 손유진 브리짓다 | 손희제 레오 | 이동현 미카엘 | 이서윤 스텔라 | 이서준 다니엘 | 이승민 안드레아 | 이어진 루시아 | 이재영 라파엘 | 이지원 레오니아 건강회복 기념 | 임은서 에스더 인턴 첫 월급 기념 | 장영우 바르나바 | 조현준 미카엘 | 최정우 라파엘 | 황유진 카타리나 승진 기념

생애주기별기부로 따뜻한 세상 만들어요!

생애주기별기부 참여신청 및 문의 | 02)727-2299

생애첫기부

강지우 2018.07.15生 | 김나윤 2018.07.03生 | 김민석 마태오 2018.11.13生 | 김선우 2018.08.04生 | 김선윤 2015.03.25生 | 김수안 스틸라 2018.07.19生 | 김시현 다니엘 2018.06.20生 | 김연우 미카엘라 2018.08.30生 | 김유나 로사리아 2018.09.18生 | 김유준 2018.06.23生 | 김유준 라파엘 2012.04.02生 | 김유하 2018.08.16生 | 김이준 라파엘 2018.08.23生 | 김정인 2018.08.08生 | 김주한 2019.06.12生 | 김채은 2018.08.18生 | 김채훈 2019.05.09生 | 김하연 2019.07.26生 | 김하윤 리디아 2017.09.03生 | 김하준 빈첸시오 2018.09.11生 | 남수빈 미카엘라 2019.04.23生 | 문예나 2019.07.31生 | 문유준 2018.11.07生 | 박담하 라파엘 2018.08.27生 | 박서은 젬마 2018.05.30生 | 박유주 2017.08.25生 | 박재영 야고보 2018.07.24生 | 박준우 테오도로 2019.03.21生 | 박준현 2015.08.10生 | 박해인 2019.03.19生 | 백승재 프란치스코 2018.06.29生 | 선지훈 안토니오 2014.03.09生 | 송소미 율리아 2011.05.22生 | 송지안 가브리엘라 2016.09.25生 | 안이준 2019.02.25生 | 안지율 라파엘 2018.07.12生 | 양효진 미카엘라 2018.06.27生 | 여윤주 이사벨라 2017.03.27生 | 예쁨이(태명) 2019.06.23生 | 오하율 2018.06.20生 | 올레(태명) 2019.07.15生 | 우지호 사도요한 2018.06.12生 | 윤우진 사무엘 2013.04.04生 | 은총이(태명) 2019.10.30生(예정) | 이나율 아녜스 2018.08.29生 | 이래하 2019.04.13生 | 이민솔 그라시아 2014.07.06生 | 이소예 소화데레사 2018.06.05生 | 이연준 2016.06.10生 | 이연진 2016.06.10生 | 이영서 안젤리나 2009.07.15生 | 이예빈 2017.09.13生 | 이유민 라파엘 2016.05.25生 | 이유하 요한 보스코 2019.03.16生 | 이주원 2018.08.15生 | 이지안 미카엘라 2018.09.28生 | 이지우 스텔라 2018.05.25生 | 이지원 엘리사벳 2018.06.29生 | 이지호 프란치스코 2018.03.28生 | 이지환 가브리엘 2018.08.01生 | 이하루 2018.06.26生 | 임비오 비오 2017.02.07生 | 임서진 2018.07.05生 | 임수빈 미카엘라 2018.06.15生 | 임윤아 릴리안 | 임첼리나 첼리나 2018.12.28生 | 장우영 가브리엘 2018.07.09生 | 전서연 미카엘라 2018.06.27生 | 정리윤 2019.05.14生 | 정마리 스텔라 2018.08.25生 | 정온유 라파엘 2014.09.11生 | 정유하 안토니오 2018.06.26生 | 정윤지 올리비아 2019.03.29生 | 정재혁 미카엘 2017.08.03生 | 조민서 스텔라 2008.06.02生 | 조이현 이냐시오 2018.07.02生 | 주정우 사도요한 2019.03.11生 | 지민준 2018.08.28生 | 지윤아 스텔라 2018.03.10生 | 차명진 레오 2018.11.14生 | 최현호 2004.08.19生 | 한이준 2018.06.08生 | 홍유진 2019.03.06生 | 황이수 레아 2017.01.05生 | 황이원 보나 2017.01.05生

두 번째 기부

고보민 카타리나 2013.06.18生 | 고보성 다니엘 2015.05.28生 | 권윤한 2016.03.14生 | 권은별 마리스텔라 2017.07.07生 | 김규린 라파엘라 2012.08.06生 | 김나연 미카엘라 2014.12.07生 | 김예준 바울리노 2017.06.22生 | 김율 이냐시오 2010.09.02生 | 김지연 2015.06.16生 | 김지우 젤라시오 2016.11.21生 | 김채훈 2019.05.09生 | 박민지 로즈마리 2013.05.31生 | 박서현 레베카 2016.11.01生 | 박호림 고스마 2018.05.27生 | 배민서 로사 2017.07.01生 | 선루아 2014.08.03生 | 선리엘 2012.07.21生 | 송지아 2016.07.08生 | 안이준 스테파노 2010.06.25生 | 왕서연 2017.06.09生 | 유일한 2017.11.17生 | 윤서하 라파엘 2016.07.25生 | 윤수련 2018.07.20生 | 이다연 샬롯 2016.06.22生 | 이다온 에스텔 2014.06.06生 | 이로운 베네딕토 2019.02.21生 | 이승유 리노 2016.09.12生 | 이유현 에스텔 2019.02.27生 | 이재인 프란체스카 2013.06.12生 | 임현성 라파엘 2017.09.14生 | 정유나 벨라뎃따 2018.03.06生 | 차정원 라파엘 2017.09.11生 | 최민혁 루이 2013.05.10生

세 번째 기부

권호연 사무엘라 2016.07.19生 | 김가현 미카엘라 2008.12.03生 | 김도형 안토니오 2016.06.13生 | 김라온 다니엘 2017.07.10生 | 김민성 2015.01.13生 | 김시연 아녜스 2010.11.13生 | 김시우 도미니코 2016.08.14生 | 김찬유 요셉 2015.06.26生 | 박라온 아우로라 2015.08.08生 | 서동환 필립보 2008.12.21生 | 서시현 프란치스코 2013.08.07生 | 신유진 도미니코 2015.08.02生 | 안진호 사도요한 2016.07.22生 | 이로운 가브리엘 2016.07.01生 | 이재원 라헬 2016.07.27生 | 이지환 레오 2016.09.05生 | 이진아 2013.03.05生 | 이하나 마리스텔라 2016.06.26生 | 이하니 마리스텔라 2016.07.25生 | 이현율 다니엘 2016.08.03生 | 임해빈 베네딕도 2014.07.11生 | 조하랑 미카엘라 2016.07.15生 | 허윤우 베로니카 2016.08.31生 | 홍준기 이냐시오 2014.07.31生

고인을 기억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기부

故 남상남 암브로시오 | 故 심정택 요안나 | 故 이현희 데레사 | 故 조정갑 요한 | 아기천사 홍해성

반려동물 이름으로 기부

故 강아지 김첫눈 떠난 너를 추억하며

네 번째 기부

권지호 이레네 2015.07.08生 | 김규린 프란체스카 2015.06.03生 | 김민서 클레어 2016.08.12生 | 김민채 2016.08.08生 | 김수현 미카엘 2015.06.21生 | 김제아 에바 2015.08.25生 | 김택진 바오로 2015.06.30生 | 박서우 그레고리오 2015.09.13生 | 송지호 가브리엘 2014.06.27生 | 이서연 클라우디아 2015.08.25生 | 이소민 라파엘라 2015.10.02生 | 이승민 니콜라오 2015.07.09生 | 이지호 소피아 2015.09.30生 | 정하윤 베로니카 2015.06.27生 | 조서윤 2016.08.09生 | 조영헌 가브리엘 2014.11.01生 | 조윤상 미카엘 2015.09.02生 | 한서윤 세라피나 2014.10.02生 | 한진우 베네딕도 2015.07.15生

다섯 번째 기부

고다연 빅토리아 2014.09.22生 | 곽재인 클라라 2015.08.11生 | 김서현 2014.08.06生 | 김하은 클라우디아 2015.08.07生 | 김해온 바오로 2014.06.30生 | 문소현 모니카 2014.08.27生 | 박시현 바오로 2015.06.17生 | 오서하 2013.07.09生 | 윤여강 2014.07.03生 | 이도담 리디아 2013.08.03生 | 한건우 야고보 2012.07.29生

여섯 번째 기부

권승후 아론 2012.12.21生 | 김지아 마리나 2013.07.18生 | 박대림 다미안 2015.08.10生 | 배지호 루피나 2013.07.18生 | 엄정훈 2013.06.19生 | 윤주미 마리아 2013.06.12生 | 윤혜림 마리나 2013.06.04生 | 이서율 에스텔 2012.07.23生 | 이윤재 2014.09.12生 | 이하율 미카엘 2018.04.02生 | 이현우 가브리엘 2013.06.27生 | 임해아 2013.08.06生 | 장윤 2013.08.20生 | 차은아 페트라 2015.06.29生 | 최성은 2014.01.13生 | 한서준 스테파노 2010.06.24生

일곱 번째 기부

권태리 미카엘라 2012.06.22生 | 권태린 가브리엘라 2012.06.22生 | 김요한 세례자요한 2007.06.18生 | 박지유 스텔라 2013.07.12生 | 신지섭 대건 안드레아 2013.07.01生 | 오윤우 안드레아 2009.06.07生 | 윤혜정 엔다 2012.03.08生 | 이가은 스텔라 2012.08.31生 | 이승수 스테파노 반델리 2012.06.13生 | 이윤영 안나 2012.08.31生 | 이종현 대건 안드레아 2012.08.27生 | 홍지유 마리아 이사벨라 2012.08.29生 | 황송현 2012.08.28生

여덟 번째 기부

고영훈 요한 2013.04.13生 | 김리예 율리아 2011.05.23生 | 김보민 보나 2012.05.03生 | 이지우 엘리사벳 2011.09.05生 | 한승우 라파엘 2010.07.29生

아홉 번째 기부

김영선 소피아 2010.07.24生 | 김영준 미카엘 2010.07.24生 | 이지인 에스텔 2011.07.13生 | 전상훈 스테파노 2009.01.26生 | 홍은진 마리아 2010.06.15生

열한 번째 기부

김동하 다니엘 2008.08.04生

열세 번째 기부

조호연 베르나르도 2007.08.20生

열다섯 번째 기부

고믿음 2015.06.11生

스물다섯 번째 기부

이승유 콘스탄티노 2014.04.12生

생일 기부

김현경 리디아 | 양민정 | 윤기연 카타리나

축일 기부

박송완 베네딕토 | 이수현 마리아 | 홍준서 베네딕도

아름다운 부부의 기부

엄윤재 안드레아 & 최은혜 수산나 결혼1주년 기념 | 김대현 미카엘 & 이지원 레오니아 결혼10주년 기념 | 김명규 & 최인경 미카엘라 결혼7주년 기념 | 김영기 요한 & 남상주 율리안나 결혼5주년 기념 | 김현규 베드로 카니시오 & 나주희 마리스텔라 결혼5주년 기념 | 김희철 도미니코 & 박현미 도미니카 결혼25주년 기념 | 박성규 미카엘 & 서미주 아녜스 결혼5주년 기념 | 배주환 & 이종은 크리스티나 결혼2주년 기념 | 빈센트 들로름 아브라함 & 김태희 소화데레사 결혼3주년 | 서상경 토마스 & 김영숙 마틸다 결혼40주년 기념 | 신민철 & 강세희 가브리엘라 결혼1주년 기념 | 이재관 로베르또 & 양미경 스텔라 결혼13주년 기념 | 이정희 & 윤혜원 요안나 결혼21주년 기념 | 장재업 시몬 & 여은혜 루시아 결혼10주년 기념 | 장진철 가브리엘 & 정다운 소피아 결혼 기념 | 정지훈 사비노 & 박남희 헬레나 혼인성사 기념 | 조수한 안드레아 & 이의선 글라라 결혼1주년 기념

본부 소식

1 '주교님과 함께 하는 생애주기별기부 전달식' 시작

본부는 지난 7월 '주교님과 함께하는 생애주기별기부 전달식'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본부 기부 프로그램인 '생애주기별기부' 참여를 위해 본부를 직접 찾은 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한 자리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은 본부 이사장 유경촌 디모테오 주교님께서 전달식에 함께하시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흑석동 성당 견진교리 교육 진행

지난 9월은 흑석동 성당을 찾아 총 5차례에 걸친 견진교리 교육(전신자 재교육 포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대주제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3 본당과 함께 하는 한마음한몸운동 캠페인 실시

본부는 지난 7월 화곡본동성당과 9월 문정2동성당을 찾아 본부를 소개하고 생명나눔, 국제개발협력, 자살예방활동, 나눔캠페인등 본부가 펼치는 다양한 캠페인을 본당 교우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본당 주임 신부님 이하 모든 공동체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4 가톨릭생명나눔센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본부에서 운영하는 가톨릭생명나눔센터가 지난 9월 10일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가 주최하는 제2회 생명나눔주간 기념식에서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5 하반기 조혈모세포기증 캠페인 시작

서울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 및 광주교구와 함께 조혈모세포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희망자 모집을 위한 하반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수원가톨릭대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대학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6 띠앗누리 전체모임, 놀이터 진행

지난 8월 31일(토) 명동에서 띠앗누리 출신의 지구시민 서포터즈 단원 5명이 직접 준비한 띠앗누리 놀이터 "그래, 우리 띠앗누리 였어!"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총 40명의 띠앗누리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구시민 의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7 계성고등학교 지구시민교육

본부는 9월 18일(수), 25일(수), 10월 2일(수)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계성고등학교 2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구시민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구시민에 대해 이해하고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을 확인했습니다.

8 등촌 7 종합사회복지관 자살예방교육 및 캠페인

지난 8/5(월) ~ 6(화), 8/12(월) ~ 13(화) 두 차례 걸쳐 등촌 7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강서구 관내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과 함께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참여한 청소년들이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9 강화도 예수성심전교회 자살예방 캠페인

센터는 9월 5일 (토) 강화도 예수성심전교수도회 강화도 성전에서 후원회원 및 수도자 300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가족사랑 액자 만들기 및 내 마음을 돌보는 마음 손수건 캠페인을 진행하여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를 바꾸는 띵문띵답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띵문띵답, 띵Q

매주 월요일 저녁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유튜브에서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띵문띵답', '띵Q'를 검색하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라이브 "Oh!boss"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본부의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행복한 가정,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엮어 본부장 김정환 신부님이 직접 전해드립니다. 또한, 서울대교구 병원사목위원회 위원장 김지형 신부님과 함께하는 '주간 티슈' 코너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신부님들을 초대하여 나누는 토킹 타임까지. 재미있는 시간으로 구성되오니 많은 분이 참여하셔서 소통하며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유튜브 계정 www.youtube.com/obosvideo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루 100원 모으기 후원신청서

❶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고 ❷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❸ **1666-1056**(문자수신 전용)으로 보내주세요.
전화(02)774-3488)와 홈페이지(www.obos.or.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름(세례명) **종교**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적어주세요.

주소 **소식지** ☐ 수신 ☐ 미수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 수신 ☐ 미수신

이메일 **뉴스레터** ☐ 수신 ☐ 미수신

후원분야 ☐ 전체 사업 ☐ 국내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자살예방사업 ☐ 지구촌 빈곤 퇴치사업 ☐ 해외 긴급구호사업 ☐ 국내 사회복지사업 ☐ 기타 ( )

후원금액 ☐ 3,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 기타 ( )원

납부방법

☐ 자동이체
- 은행명 예금주
- 계좌번호
-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혹은 사업자등록번호)
- 이체일 ☐ 매월 5일 ☐ 매월 20일

☐ 카드결제
- 카드사명 소유자명
- 카드번호
- 유효기간 년 월 이체일 ☐ 매월 5일 ☐ 매월 20일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 안 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① 수집 및 이용목적: 자동이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② 수집항목: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등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③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④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신청 절차에 의해 반드시 개인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셔야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① 제공받는 자: 국세청, (사)금융결제원, (주)휴먼소프트웨어, (주)휴머스온, NICE페이먼츠(주), 금융회사 ② 개인정보이용목적: 세액감면혜택제공 및 기부금 영수증 명세확인, 지로자동이체 출금동의 확인, 출금 신규등록 및 해지 통지, 결제정보 관리, 이메일 및 문자발송등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 계좌주 주민등록번호, 카드사명, 카드번호, 카드 유효기간등 ④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 ⑤ 신청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기부금 영수증 신청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www.obos.or.kr)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예금주)은 신청 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후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른 경우 예금주 (서명 또는 인)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함께 실천하는 사랑나눔

하루 100원 모으기 | 100원, 그 큰 나눔의 씨앗
100원짜리 동전을 모아 작은 정성, 큰 마음으로 후원합니다.

생애첫기부 |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아이
소중한 아이의 생일, 그 축복을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친구와 나눕니다.

기념일기부 | 내 생에 뜻깊은 날이 이웃에게도
생일, 입학, 취업 등 뜻깊은 날. 자신 또는 사랑하는 이에게 나눔의 기쁨을 선물합니다.

유산기부 | 가장 위대한 유산, 나눔
우리가 남긴 유산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언을 남깁니다.

헌미헌금 | 예수님의 마음으로
헌미헌금 봉헌의 달인 5월과 9월, 예수님과 이웃 몫의 한 줌 쌀을 모으는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나눔가게·나눔기업 | 내 가게를 나눔의 터전으로
가게와 기업에게는 사회공헌의 기회, 소비자에게는 일상 속 나눔 실천의 기회입니다.

ARS 후원 | 가장 쉽고 빠른 나눔, 060-700-1117
한 통화당 3,000원. 사용한 전화요금 결제를 통해 후원합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로 연락주시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02)727-2285, 2288 | obos@catholic.or.kr
www.obos.or.kr

후원계좌
우리은행 454-005324-13-001
국민은행 083-01-0309-453
농협 386-01-015833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One-Body One-Spirit